

전문가풀 보고서(APEC/금융거시 분과)

일시: 2006년 3월 22일

발표자: 문우식 (서울대학교 교수)

토론자: 문홍성 (재경부, 금융협력과장)
최희남 (재경부, 외화자금과장)

주제: 동아시아 통화통합 로드맵

참석자: 윤덕룡 (KIEP, 간사)

문우식 (서울대학교, 교수)

문홍성 (재경부, 과장)

최희남 (재경부, 과장)

이영섭 (숙명여대, 교수)

채희율 (경기대, 교수)

박명호 (한국외대, 교수)

오용협 (KIEP, 부연구위원)

송원호 (KIEP, 부연구위원)

주요 발표내용:

1. 통화통합은 왜 해야하나?

- 역외적으로 국제통화시스템 불안으로부터 아시아 통화를 보호하고 역내적으로 교역증진과 균형성장을 위해 회원국간 환율안정과 이를 위한 통화협력이 필요

- 중장기적으로 합리적인 통화협력이 이루어지고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통화통합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

에 접근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한편, 이러한 바탕 위에 한국의 전략적 입장을 시기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필요함.

- 통화통합에 이르는 과정은 가급적 참가국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점진적, 단계별 접근 (Gradual step by step approach)을 통해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개략적으로 3단계를 설정할 수 있음.

2. 제1단계 통화협력: 정책공조 강화

- 이 단계에서의 핵심적인 추진 사안은 경제정책공조(Policy coordination)를 위한 토대 구축, 아시아환율안정기금의 도입, 그리고 RCU와 같은 역내 통화를 도입하는 것임.

- 이러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제1단계에서 각국 금융정책당국으로 구성된 금융제도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EU의 금융서비스실행계획 (Financial Services Action Plan)을 벤치마킹하여 동아시아의 금융시장 통합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이 필요함.

3. 제2단계 통화협력: 공동환율제도 도입

- 제2단계는 본격적으로 환율협력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이를 지지하기 위한 신용메커니즘이 확립되는 한편 RCU가 단순한 표시통화에서 결제통화 등으로 기능이 확대되는 단계이며 제1단계에서 제2단계로의 이행은 질적인 도약을 의미하므로 기본적으로 정치적 의지가 매우 중요하며 제1단계에서 제2단계로의 진행은 가급적 빨리 이행할 필요가 있음.

- RCU가 단순히 역내국통화들의 가치를 표시하는 numeraire로 뿐만 아니라 점차 공적결제 및 시장개입 수단으로 그 활용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며 결제통화의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RCU가 실물형태로 존재할 필요는 없지만 장부통화의 형태로라도 발행될 필요가 있음.

- EU의 경우 회원국 중앙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금과 달러 잔액의 20%를 유럽통화협력기금(EMCF)에 예탁하고 EMCF가 반대급부로 ECU를 발행하였으며 동아시아에서도 가칭 아시아통화협력기금(AMCF, Asian

Monetary Cooperation Fund)을 설치하고 각국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과 역외통화를 출자 혹은 예탁하여 반대급부로 RCU를 창출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함

- 공동환율제도의 도입후 역내 환율안정을 위해서는 허용된 범위내에서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는 신용공급제도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동아시아 지역에서 환율안정을 위한 기금의 설립은 Post-CMI 논의에서 신용공급제도가 기구화될 경우 통화협력의 제2단계에서는 이 기구를 아시아환율안정기금(Asian Exchange Stabilization Fund)으로 발전하여 새로운 역할을 담당케 하는 것도 바람직한 대안이 될 것으로 사료됨.

4. 제3단계 통화협력: 단일통화도입

- 아시아 중앙은행(ACB)의 창설과 아시아통화를 도입하는 단계로 단일통화의 도입은 사실상 정치적 여건이 경제적 여건보다 중요한 측면이 있으므로 통화통합으로 진전되기 이전에 사회적, 문화적 교류가 적극화되고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진전은 상당한 시간과 참여국들의 공동 노력이 요구됨.

5. 제도화의 추진

- 통화협력의 현실화는 결국 제도화를 통해 협력을 정형화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제도화는 협력을 공고히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나 아시아에서는 모든 국가가 이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어서 실질적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

주요토론내용:

토론자1: 통화협력이나 통화통합의 필요성은 다 인식되지만 통화통합을 위해 치루어야 하는 비용도 있는 만큼 실제로 발생하는 이득이 비용보다 더 클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정책화하기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비용-편익분석이 정밀하게 이루어 질 필요성이 있음.

토론자2: 통화통합이 진행되더라도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한국의 역할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음. 한국의 경제력 비중이나 시장규모,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 등을 고려할 경우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동 이슈에 대하여 정책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토론자3: 통화통합은 경제적인 동기가 근본이기는 하지만 진행과정은 정치적 프로세스이므로 정치적 비전, 미래에 대한 공동의 이해관계가 중요할 것.

토론자4: 경제적인 비용-편익은 눈에 보이는 주요지표이겠지만 정치적, 문화적 동기가 오히려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태도나 이에 대한 과거 해소가 충분히 되지 않고 일본이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하여 주변국을 자극하는 행위 등은 향후 미래의 동반자라는 확신을 가지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므로 이러한 부분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토론자5: 현재 아시아는 상호 경제적 연관관계가 높아져서 사실상 독립적인 경제단위로만 간주하기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어서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의 영화나 노래 등이 주변국에서 유행하고 우리나라에도 일본이나 중국 노래 등이 유행하기 시작하고 있어서 문화적으로도 교류가 증가하여 친밀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오히려 정치분야나 정부간 협력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듦. 따라서 안되는 이유를 찾기보다는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하는 측면에서 통화통합문제를 보지 않으면 이 지역에서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을 것.

토론자6: 일단 아시아 지역에서는 공동의 비전이나 공동의 목표가 제시되지 않고 아시아공동체에 대한 이상을 가지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보임. 이를 위해 우선 역내 국가들이 공동의 비전을 선포하는 행사 등이 필요할 것. <끝>